

李 집권 두 달 만의 ‘조·청 전성시대’

태평로

배성규

정치 에디터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사면 전 측근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조국 전 대표를 왜 사면해 줘야 하나까?” 명분이 없다는 뜻이었다. 연말이나 내년으로 미루자는 의견이 적잖았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대선 협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여권 내부와 지지층의 압박도 컸다. 현실론에 밀렸다.

원칙을 어긴 대가는 컸다. 지지율이 폭 떨어졌다. 조 전 대표는 출소하자마자 내년 선거 출마를 공언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말하면서도 합당엔 선을 그었다. 지지를 하락에 대한 책임은 “n분의 1”이라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지역 순회에 나섰다. 독자 세력화 의도가 명확했다. 대통령실은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이 컸다고 한다. 민주당이 뒤늦게 “개선장군 행세 말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조국이 움직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쟁이 불가피하다. 호남 등 여권 기반을 잠식할 것이다. ‘호랑이를 풀어준 격’이다.

대통령의 더 큰 고민은 정청대 민주당 대표다. 정 대표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검찰·법원 개혁안 등을 줄줄이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대통령에

게 “내가 배드캡이 돼 개혁의 선봉을 맡겠다. 한두 달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굵은일은 자신이 할 테니 대통령은 믿고 따라와 달라는 뜻이었다.

이 대통령은 큰 방향엔 공감했지만 방법론이 달랐다. 실용주의 노선에도 어긋났다. 댁까지 없게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참모들이 이런 뜻을 전했지만 정 대표는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직접 정 대표를 만났다. 그런데 오히려 ‘추석 전 법안 처리’로 결론났다. 대통령의 ‘실용과 통합’ 대신 정 대표의 강경 노선이 관철된 모양새였

조국 세력화 ‘호랑이 풀어준 격’ 정청대 독주에 ‘명심보다 청심’ 실용·협치 꼬이고李 장악력 약화 ‘野’보다 힘든 조·청 관계’ 풀어야

다. “명심(明心)보다 청심(淸心)”이라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실에선 “개혁의 과실은 정 대표가 따먹고 욕은 대통령이 먹는다”고 했다. 명·청의 굵갑·배드캡 역할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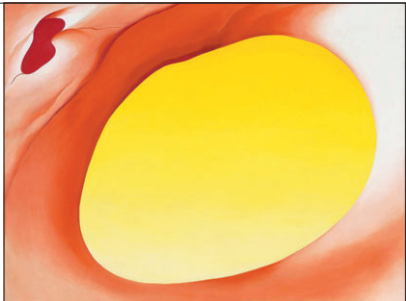
정치권 주연으로 떠오른 두 사람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마음은 난감할 것이다. 정 대표가 지지층의 박수를 받으며 자기 정치를 하는 사이 대통령의 국정 주도력은 약해졌다. 실용 노선에 대한 불신도 커졌다. 조국의 재등장은 지지율을 쥐고 원심력을 키웠다. 대통령실 핵심 인사는 “대야 관계보다 ‘조·청(曹淸) 관계’가 더 골치 아프다”고

했다. 두 사람은 이미 여권의 차기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역대 정권에서 이 인사들이 이처럼 일찍 전면에서 나선 적은 없었다.

지금 이 대통령의 가장 큰 과제는 트럼프발(發) 통상·안보 위기와 구조적 저성장의 합정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유연한 실용주의 정책을 통해 기업과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 통합과 협치로 국민 지지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여당은 기업을 옥죄고 성장을 가로막는 법안들을 연이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을 ‘국민의 적’이라고 비하하고 외면했다.

정청대식 폭주를 방지하면 실용도 협지도 힘들다. 중도·보수층은 이탈하고 대통령 리더십도 흔들린다. 조국을 놔두면 범여권이 분열할 것이다. 두 사람을 적절히 제어해야 한다. 하지만 정 대표의 관심은 딴 곳에 있는 듯하다. 머리에 금관을 쓴 사진을 올리고, 노란봉투법 처리 후 “역사적으로 큰일했다”고 자화자찬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싸우면 정권은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 노무현-정동영, 박근혜-김무성, 윤석열-이준석·한동훈이 그랬다.

조 전 대표는 ‘포스트 이재명’을 바라보고 있다. 현 정권에 협력자인 동시에 자기 정치를 하는 사이 대통령의 국정에 경쟁자다. 친문·호남 교두보를 토대로 언제든 적이 될 수 있다. 조·청이 차기 경쟁을 하면 통제는 더 힘들어진다. 이 대통령으로서 취임 두 달여 만에 풀기 힘든 난제에 부딪혔다. 스스로 밝힌 노선과 원칙을 어긴 결과다.



조지아 오키프, 골반뼈, 빨강과 노랑, 1945년. 캔버스에 유채, 91.4×121.9cm, 개인 소장.

을 바라보면, ‘인간의 모든 과과가 끝난 뒤에도, 하늘은 존재할 것’이라고 했다.

거대한 생명체가 죽어 피와 살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 있는 메마른 뼈. 그 뼈의 틈으로 불타는 하늘을 바라보는 경험은, 삶의 무상함과 시간의 위엄을 느끼게 한다. 인간의 오만과 폭력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너머에는 모든 걸 초월하는 시간이 있다.

포스트백 교수·서양미술사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96]

뺨조각 너머 불타는 하늘

둥그스름한 밝은 노랑에서 옅은지색과 붉은색이 부드럽게 변진다.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화가 조지아 오키프(Georgia O'Keeffe-1887-1986)가 그린 소의 골반뼈다. 사막을 걷다 백골이 된 소뼈를 발견한 오키프는 그 빈 구멍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얀 뼈와 파란 하늘이 공존하는 그림을 여러 점 남겼다. 그러나 이 그림은 온 사막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붉게 타오르는 석양을 응시하고 있다. 첫눈에는 추상화 같지만, 알고 보면 사실보다 더 사실적인 화면이다.

뉴욕에서 화가로 활약하던 오키프는 마흔을 넘긴 어느 날 뉴멕시코를 찾았다가 그 황량한 사막과 아메리카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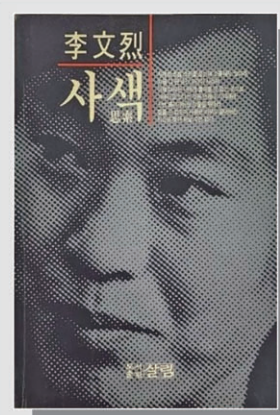
주민·히스패닉이 혼합된 이국적 문화로부터 강렬한 영감을 받았다. 이후 매년 여름을 그곳에서 보내던 그는 남편이자 사진가였던 앨프리드 스티글리츠가 세상을 떠난 후, 1949년에 뉴욕을 완전히 떠나 뉴멕시코의 ‘고스트 랜치’에 정착했다. 유명이 출몰한다는 전설이 얹힌 그 땅에서, 오키프는 98세를 눈곱을 감을 때까지 구도자 같은 삶을 살았다.

1945년 여름, 고스트 랜치에서 약 300km 떨어진 엘라모고고도 사막에서는 최초의 핵폭탄 시험, ‘트리니티’가 성공했다. 그로부터 3주 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다. 그즈음 오키프는 백골을 통해 타오르는 하늘

이문열·김행범·김태규·이동호의 질타

좌파 무죄-우파 유죄! 좌파 솜방망이 우파 쇠방망이! ...

이게 판사냐? 판사지!



◀ 작가 이문열의 산문집 《사색》 표지. © 도서출판 살림

판사 아니라 판사가 만든 세상
외형만 법치주의, 실재는 좌편향 정치재판
이게 정상적 나라인가?

판사가 좌파 손만 들어주는 세상

이문열 작가 산문집 《사색》. “법은 정치로부터 객관화 되어야 하지만, 지상에서 그런 법이 시행된 적은 없다. 그것은 이상(理想)... 땅 위의 법은 언제나 눈을 부릅뜨고 재판당할 자의 색깔부터 살핀다.”

《재판당할 자의 색깔부터 살피는 행태》가 만연하다. 박근혜 탄핵 정변 이후부터 그렇다. 좌파엔 너그럽고 우파엔 가혹하다. 《좌파 무죄-우파 유죄 / 좌파 솜방망이 처벌-우파 쇠방망이 처벌》은 암묵적 관례가 됐다.

올곧은 지식인 김행범 부산대 행정학과 명예교수의 비판이다. “원고-피고 어느 쪽 《손을 들어줬다》는 언론 보도는 법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근래 1심-2심-대법 재판 및 현재 결정을 보고 느낀 결론은, 그전 꾸며 낸 표현이고 실제로는 천박한 수준임을 알게 됐다.”

개딸 4050 판사들이 장악한 법원

서울법대 출신 이동호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구속 영장 발부 판사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조국은 실행 선고에도 부인이 구속 중이라 방어권 운운하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 부인은 남편이 구속 중이고 혐의를 부인하는 데도 구속했다... 특검이야 정권의 끄나풀이니 그렇다 쳐도 영장 판사는 법과(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인지 의심스럽다. 그냥 보수(국힘, 윤 전 대통령내외)가 싫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좋아 저렇게 판결한 게 아닌가... 《줄리 너 제대로 몇 한번 먹어 봐라》는 식의 사적이고 천박한 감정이 개입된 원님 재판... 완전 좌경화된 개딸 4050 판사들이 법원에 좌악 깔렸다.”

이런 《그들만의 정의(正義)》에 매몰된 판사가 한둘이 아니다. 판사의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출신지 역-고교만 알면, 판결을 예상할 수 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판사가 판사가 된 이유

방통위 부위원장을 지낸 김태규 변호사는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절 《판새》라는 글로 반향을 불러 일

세 차익을 노리는 주주들과 연합해 자신들이 원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외국계 투기 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한 뒤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재원을 배당 등으로 빼먹고 빠져나가는 이른바 ‘먹튀’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대한상사가 300개 상장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74%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30대 상장 기업 중 8곳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자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발표했다.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민주당과 정부는 “일단 시행해 본 뒤 부작용이 나타나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옥죄는 법안은 서둘러 처리하면서도 기업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과 배임죄 폐지 등 기업들이 요구하는 보완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다. 국력은 경제력에서 나오고, 경제력은 기업이 키운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으로 기업들은 갑자기 조조와 소액주주 양면에서 협공을 당하게 됐다. 각종 부정적인 대외 변수까지 겹친 마당에 경영권이 버터 내겠나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비명횡사’ 민주당이李대통령과 잇나가는 상식 밖 움직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민의힘 대표로 ‘반탄파’가 당선돼도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대 대표가 ‘반탄파’를 “내란 세력”이라며 대화와 약수도 하지 않겠다는 태도와 대비된다. 이 대통령은 집권당과 다른 입장에 대해 “정 대표도 고민했을 것” “여당 대표와 대통령 입장은 다르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 대 당으로 (여당과) 경쟁하는 입장”이라서 나라 전체를 보는 대통령과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율권을 갖고 움직인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절대 충성 세력들이 당 전체를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시 이재명 당 대표와 반대편에 섰던 반명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대표와 특별한 친분 관계가 없는 비명마저도 대부분 공천에서 탈락하면서 ‘비명횡사’라는 말까지 나왔다. 비명계가 탈락한 자리는 모조리 친명 그룹이 차지하면서 ‘친명횡재’라는 우스갯소리로 덧붙여졌다. 이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는 당에서 완전히 사

라졌다. 민주당이 특정 개인을 위한 ‘인정당’이 됐다는 소리를 듣게 된 상황이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던 당시 이 대표의 다짐이 실현된 셈이다.

이런 마당에 이 대통령 말과 민주당 일에 엮이자가 반복되고 있어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얼마 전 이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줄속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지 사흘 만에 민주당은 폐지 날짜를 잡았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통령 생각”이라고 한 지 6시간 만에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서 방송법을 일방 처리하기도 했다. 무슨 일인지 국민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나라에서 여당이 집권 초부터 대통령 뜻을 역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헌정 사상 최강의 장악력을 확보했다는 이 대통령의 민주당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민주당이 자율적으로 대통령 입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설명이 곧이곧대로 믿기지 않는 것이다.

과잉 수사 비판하던 민주당이 특검 연장 추진,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늘리고 활동 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 중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선 과건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특검 활동 기간(최장 150일)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1월 말까지 수사가 가능한 김건희 특검은 연말까지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수사에 착수한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이 167지에 달해 수사할 내용이 많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과건 검사만 40명에 달하고, 수사도 5개월간 할 수 있다. 집중적으로 수사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얼마든지 끝낼 수 있다. 검찰도 웬만한 대형 사건 수사를 두세 달 안에 끝낸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데 수사한 지 두 달밖에 안 돼 수사가 절반도 안 지났는데 민주당이 벌써부터 법을 개정해 수사 기간을 연장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개정안 중엔 수사 대상을 더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수사할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수사 대상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

가 맞지도 않는다. 수사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거나 시간이 부족해 수사를 다 못 한 의혹들은 활동을 종료한 뒤 검찰 등 수사기관에 내용을 넘기면 된다. 기존 특검들도 다 그렇게 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수사 초반부터 법을 바꿔 기간과 대상을 늘리겠다고 한다.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용해 수사를 정치 공세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개정하려 하자 ‘내란 특검’은 범행을 자수하거나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형을 감면하거나 공소를 보류해줄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지금도 기소여부는 특검이 결정할 수 있는데 내부자 진술을 보다 원활히 끌어낼 수 있도록 이를 법에 명시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면 특검과 민주당이 한 몸처럼 수사한다는 말이 나올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정권 때 검찰이 당초 수사 대상과 다른 혐의를 수사한다면서 “정치 검찰의 과잉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런 검찰을 개혁하겠다고며 검찰청 폐지를 공언한 상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은 특검을 활용해 과잉 수사를 하려 한다. 내로남불이다.

newdaily.co.kr 뉴데일리

으켰다. 《판새》는 《판사새X》의 줄임말.

“폐친 글에서 《판새》를 봤다. 오타인 줄 알았는데 네 음절을 두 음절로 줄인 비속어였다. 판사들이 목적에 맞춰 법의 의미를 축소 과장하고, 궤변으로 법을 왜곡하며, 동일한 사건에 갖대의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한 게 조롱 당하는 이유다.”

판사들에게 묻는다.

- ① 국민들이 뒤뜰런 판결-결정을 어떻게 생각하느니 되돌아봤나.
- ② 《좌파 무죄-우파 유죄 / 좌파 솜방망이-우파 쇠방망이》는 왜 나오는지 자성해 봤나.
- ③ 기울어진 좌편향 판결-결정 때문에 판사들을 《판새》라고 비하하는 것이란 생각은 들지 않나.

권순환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환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8월 23일 게재되었습니다.

